

Stay Please I Can't Alive

Stay Please I Can't Alive

W. 추신 @PS_KIZ

● 시나리오 트레일러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뿔별,
소원을 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잔향.

아침이 희미해지는 것은 내가 바랐기 때문일까,
밤이 지나도록 너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부탁이야, 머물러 줘. 나는 네가 없으면…….

키즈나 불릿
「Stay Please I Can't Alive」

——인연을 부수고, 소원을 죽여라.

● 시나리오 핸드아웃

♣ PC ㉓ 핸드아웃

권장 조직: 후지노미야 학원 특별활동부

당신은 후지노미야 학원의 학생이자 불릿의 일원이다. 츠네하라 스즈는 당신의 특별활동부 선배이자 친구로, 잔소리가 많아 조금 성가시지만 늘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파트너인 사이묘 이치세가 늘 키즈나의 파괴를 떠맡고 있어, 하운드리만 상대적으로 기억도 온전하고 인간성도 훼손되지 않았다. 당신은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즈는 최근 임무를 받아 ‘현장 체험학습’을 나냈다. 분명 이치세와 함께 나갔을 텐데, 학원으로 돌아온 것은 스즈 혼자. 정황도 알지 못한 채 당신은 울먹이는 스즈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시나리오 테마: 상황을 파악하고 츠네하라 스즈를 돕는다]

♣ PC ㉔ 핸드아웃

권장 조직: 후지노미야 학원 특별활동부

당신은 후지노미야 학원의 학생이자 불릿의 일원이다. 당신에게는 사이묘 이치세라는 특별활동부의 친구이자 동료가 있다. 그는 자신의 하운드리 츠네하라 스즈를 대신하여 키즈나의 파괴를 맡고 있어, 늘 기억이 혼탁한 채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동급생들에게는 유독 덜렁이는 친구 정도로 기억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 그가 지난 임무 이후로 실종되었다. 현장에 남은 것은 오랫동안 간직했던 듯한 한 장의 낡은 사진뿐.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시나리오 테마: 사이모 이치세를 찾아 나선다]

● 시나리오 스펙

- 상정 플레이어 인원: 2명
- 상정 평균 인연(키즈나) 수: 2
- 예상 플레이 시간: 7~9시간 (온라인 세션 기준)
- 드라마 턴 수: 2
- 사용 룰북: 1권, 2권
- 콘텐츠 워닝(CW): PC들의 눈앞에서 잔향체화하는 에너지, 뒷맛이 짭짤한 엔딩 등

▼ 핸드아웃에 대하여

본 시나리오에는 핸드아웃이 두 종류 존재합니다. PC①에게는 츠네하라 스즈라는 하운드와 관계가 있다는 백스토리, PC②에게는 사이모 이치세라는 오너와 관계가 있다는 백스토리가 부여됩니다. PC의 종별과는 관계없이 불릿 구성원 중 한 명이 PC① 핸드아웃을 가지고, 나머지 구성원이 PC② 핸드아웃을 가집니다. 단일 불릿이 아닌 PC 구성으로 플레이할 시, 한 불릿이 PC① 핸드아웃을, 다른 불릿이 PC② 핸드아웃을 가져간다면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PC가 학생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선생이어도 무관합니다. 두 NPC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두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지 간략하게 결정 및 논의한 후 세션에 돌입해 주세요.

▼ NPC에 대하여

본 시나리오에는 두 명의 주요 NPC가 등장합니다. PC와 관계가 있다는 설정을 전제로 세션이 진행되므로, 사전에 관계를 설정하거나 도입 페이지 첫 마스터 장면으로 NPC-PC 사이 관계를 연출할 수 있을 장면을 삽입해 관계를 결정해 주세요. NPC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정해도 되나, 핸드아웃에 적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NPC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개변해 주세요. 기존에 PC들과 관계가 있던 다른 불릿으로 개변하는 것도, 시나리오 지정 NPC끼리의 관계를 변경하는 것도, '사이모 이치세가 키즈나의 파괴를 떠맡아왔다'는 전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탁 내 기호에 따라 자유로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からすば晴(N.G.P.)」 및 「株式会社アーカイト出版事業部」가 권리를 가지는 『キズナバ
レット 키즈나 불릿』의 2차 창작입니다.

©2021 からすば晴 / N.G.P. / アークライト / 新紀元社

이하 GM 정보입니다.

▼ 스토리

츠네하라 스즈와 사이모 이치세는 서로 소중한 사이인 불릿이다. 기적술사에게 동생을 잃은 이치세는 스즈를 동생과 같이 여겼고, 가족과 만날 수 없게 된 스즈는 이치세를 유일한 가족으로 여겼다. 이치세는 불릿의 일이 있을 때마다 키즈나의 파괴를 홀로 감당하였고, 그를 반복한 끝에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임무를 나갔을 때, 이치세는 스즈에 대한 추억을 전부 잃어버렸다. 스즈는 그런 이치세를 보고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기 위해 PC@를 찾게 된다.

스즈와 PC들이 이치세를 찾기 위해 밖으로 향하면, '기억나지 않는 소중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 거리를 행보하는 이치세를 발견하게 된다. 스즈가 눈앞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스즈에 대한 키즈나를 모조리 잃은 이치세는 스즈를 알아보지 못한다. '누군가'를 찾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이치세는 '그'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였고, 그 끝에 잔향체가 되고 만다.

페어링이 해제되어 의식을 잃기 전인 스즈와 함께 이치세를 쓰러트리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종료된다.

(사진은 이치세의 동생이 죽기 전 함께 찍었던 것. 얼굴 부분이 닳아 대상을 알아보기 어렵다.)

도입 페이지

[도입 페이지]에서는, 먼저 「마스터 장면 · 균열의 조짐」을 연출한 후, [불릿의 일상]과 [사건 개입]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마스터 장면 · 균열의 조짐

[불릿의 일상]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PC 등장 불가. 사이묘 이치세와 츠네하라 스즈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을 당시를 연출합니다.

▼ 장면 묘사 1

은빛 모래가 흩날리는 어느 공터. 그곳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인지, 몸을 비틀거립니다.

▼ 대사: 사이묘 이치세

"스즈, 너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친 곳은 없지?"

"네가 다치면 전부 소용없으니까."

▼ 대사: 츠네하라 스즈

"이치세……! 나는 하운드라서 괜찮다고 해도!"

"네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 장면 묘사 2

그러다가 돌연, 다친 쪽의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난 그는 멍한 머리를 부여잡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 대사: 츠네하라 스즈

"이치세, 괜찮은 거 맞아……?! 바로 병원으로 가자."

▼ 대사: 사이묘 이치세

"어라, 그쪽은 누구……? 나, 누군갈 지켜야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비켜주세요."

▼ 장면 묘사 3

이치세라고 불린 이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하운드를 밀어내고 무작정 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사라진 곳에는 사진 한 장과 하운드 한 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 장면 종료 확인

- 사이묘 이치세와 츠네하라 스즈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을 당시를 연출했다.
- 사이묘 이치세의 키즈나 파괴를 연출했다.

● 불릿의 일상

[불릿의 일상]은 룰에 따라 진행합니다. 연출이 끝나면 후지노미야 시키가 PC ⑥를 호출하는 연출과, PC ⑥가 자리를 비운 후 츠네하라 스즈가 PC ⑩에게 다가오는 연출을 넣습니다.

◆ 장면 종료 확인

- PC들이 각 불릿의 일상을 연출했다.
- 후지노미야 시키가 PC ⑥를 호출하는 연출을 했다.
- 츠네하라 스즈가 PC ⑩에게 다가오는 연출을 했다.

● 사건 개입 (PC ⑩)

PC ⑥가 자리를 비운 후, 동료 불릿의 하운드인 츠네하라 스즈가 우는 얼굴로 PC ⑩에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PC ⑥의 사건 개입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GM의 판단에 따라 순서를 변경해도 무관합니다. 스즈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PC ⑩를 붙잡은 채 ‘사이모 이치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 장면 묘사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당신에게 한 인영이 다가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다가오던 그는, 당신을 발견하더니 당신의 팔을 덥석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 대사: 츠네하라 스즈

"PC ⑩, 어쩌면 좋지? 나, 나……. 흑, 흑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이치세가 이상해. 이치세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를, 나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흑, 제발 도와줘…….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 장면 종료 확인

- 츠네하라 스즈가 PC 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PC가 합류를 위해 이동하는 연출을 했다.

● 사건 개입 (PC ⑥)

후지노미야 시키가 사이모 이치세의 친구인 PC ⑥를 불러 그의 실종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후지노미야 시키는 이치세의 실종에 대해 동급생들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건네며, 여유가 있다면 그를 찾아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합니다.

▼ 장면 묘사 1

후지노미야 시키는 당신을 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업무용 책상 앞 소파에 앉아 차를 우리던 그는, 당신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대사: 후지노미야 시키

"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만을 부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PC ㉞ 씨, 당신은 분명 사이모 씨의 친구였었죠? 그에 대한 소식을 당신에게만은 직접 전하고 싶어서요……."

"유감입니다. 사이모 씨는 지난 임무에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그의 실종은 하운드인 츠네하라 씨가 증언해 주셨습니다."

"츠네하라 씨의 증언을 들어보니……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더군요. 저희 쪽에서도 수색 작업을 실시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부디, 동급생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그를 찾는 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 아무래도 사이모 씨의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서요. 츠네하라 씨를 뵈게 된다면 전해주셨으면 해서……."

"무거운 부탁을 드려 죄송해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면 묘사 2

후지노미야 시키는 당신에게 한 장의 사진을 밀어 건넵니다. 사진에는 조금 어린 모습의 사이모 이치세와 얼굴 부분이 닳아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게 된 다른 한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 장면 종료 확인

- 후지노미야 시키가 PC ㉞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
- PC가 합류를 위해 이동하는 연출을 했다.

조사 페이지

[조사 페이지]에서는 PC들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조사 장면]의 [조사 표]는 룰북에 게재된 [조사 표·베이직]과 [조사 표·다이내믹]을 활용해 주세요.

● 마스터 장면 · 불행과 망각

츠네하라 스즈와 PC ㉠, PC ㉞가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스즈와 PC들은 사이모 이치세의 실종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멍한 얼굴의 이치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치세는 스즈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즈는 그 모습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이치세는 아직 잔향체화하지 않아 목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드 또한 손에 착용한 상태입니다.

▼ 장면 묘사 1

츠네하라 스즈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PC ㉠에게 자초지종을 전합니다. 후지노미야 시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PC ㉞와 조우한 스즈는 괜찮다면 같이 이치세를 찾아달라 요청합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이모 이치세의 실종 현장. 그곳에는 멍한 얼굴의 이치세가 서 있었습니다.

▼ 대사: 츠네하라 스즈

"이, 이치세……. 다시 여기로 와줬구나. 이제 돌아가자. 학교로 가야 하잖아?"

▼ 대사: 사이묘 이치세

"여기에도 없어, 아무도……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쪽은 누구인데 자꾸 저를…… 안돼,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 장면 묘사 2

그 말을 끝으로 이치세는 사라집니다. 그는 '지킨다'는 소원에 매인 것처럼 지켜야 하는 이만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잔향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은 깨끗했으며, 다이아몬드 무늬 따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이 된 걸까요. 조금 더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 장면 종료 확인

- PC들이 합류해 정보를 교환했다.
- 사이묘 이치세가 츠네하라 스즈를 알아보지 못하는 연출을 했다.
- 사이묘 이치세가 아직 잔향체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정보

이 시나리오에서 준비된 [정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정보 항목 1: 「사이묘 이치세가 처한 상황」

▼ 개시치: PC 인원수+1

▼ 내용: 사이묘 이치세는 현재 키즈나를 거의 잃어 잔향체화하기 직전의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기적술사나 잔향체의 습격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츠네하라 스즈 또한 휴면 상태에 빠지게 되겠지. 선을 넘기 전에 그를 찾아내지 않으면…….

● 정보 항목 2: 「사이묘 이치세가 있는 장소」

▼ 개시치: PC 인원수×3

▼ 내용: 그는 도시의 특정 구역을 배회하고 있다. 학교 인근 공원, 놀이터, 공터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장소만을 오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소중한 사람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것 같기도 하다. 그의 이동 경로 내 어딘가에서 사진을 미끼로 사용하면 그를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최종 결전 페이지

[최종 결전 페이지]는 [릴리즈]와 [결전]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릴리즈

[릴리즈]는 룰에 따라 각 [볼릿]마다 진행합니다.

● 결전

[결전]에서는 PC들과 사이묘 이치세가 결판을 내립니다. 사이묘 이치세는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하다 그만 잔향체화하고 맙니다. 장면의 묘사나 NPC와의 대화가 끝나면 [결전]에 들어갑니다. [종료 조건]은 「사이묘 이치세의 전투 불능」입니다. 츠네하라 스즈는 전투가 끝나면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 장면 묘사 1

학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을 봉쇄한 당신들은 사진을 들고 사이묘 이치세를 유인하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바라봅니다.

▼ 대사: 사이묘 이치세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지켜야 해요. 안돼, 그거, 내가……!"

(눈을 크게 뜨며 몸을 비튼다.) "큭, 지켜야 한다, 고…… 아아, 아아아……!"

▼ 장면 묘사 2

무기를 꺼내고 당신들 앞으로 달려가려던 그는, 돌연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비명이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가락에서 리드가 뚝 떨어집니다. 다시 고개를 든 그의 목에 새겨진 것은 선명한 검은 다이아몬드 무늬. 츠네하라 스즈는 그 모습을 보며 새된 비명을 내지릅니다.

▼ 대사: 츠네하라 스즈

"안돼, 싫어, 이치세…… 이치세……!"

"돌아와 줘, 부탁이야. 나는 네가 없으면……."

(눈물을 흘리며 PC들을 바라본다.) "……미안,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이치세를 보내줄 수 있어?"

◆ 장면 종료 확인

· [결전]이 종료되었다.

종막 페이즈

[종막 페이즈]는 룰에 따라 진행합니다. [클로즈]까지 진행하면 세션을 종료합니다.

사이묘 이치세 最明 一星

분류: 잔향체

소원: 수호

위협도: 10

▼잔향 전기

〈창날의 일섬 蒼刃の一閃〉, 〈소원의 갑옷 願威の鎧〉, 〈수호잔향 宇護残響〉, 〈불굴의 선서 不屈の宣誓〉

행동 지침: 공격력이 높지 않은 대신 단단한 에너지이니 PL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출에 유의할 것. 1라운드 개시 시에 〈소원의 갑옷 願威の鎧〉과 〈수호잔향 宇護残響〉을 사용해 돌입과 동시에 PL이 에너지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사유로 〈불굴의 선서 不屈の宣誓〉 또한 처음 돌아오는 타이밍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생명치가 높은 에너지와의 결전은 상대적으로 긴 플레이타임을 요구하므로, 시간 조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설: 기적술사에게 동생을 잃고 후지노미야에 입학해 오너가 된 케이스. 한때는 기적술사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했다고 하나, 그것도 전부 옛날 일. 하운드인 츠네하라 스즈를 만난 이후로는 그를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기적술사와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스즈를 보호하는 일을 더 우선하게 된 이의 말로는 다름아닌 잔향체화였다.

잔향체가 되기 직전, 이치세는 스즈에 대한 키즈나를 잃었다.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욕망만을 남긴 채, 그 대상을 잊어버리고야 만 것이다.

학교에서는 유독 덜렁대는 이미지였다고 한다. 키즈나의 파괴를 혼자 떠안은 탓이었으나, 일반인은 그러한 속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츠네하라 스즈 恒原 鈴

해설: 이치세보다 한 학년 후배여야 했으나, 이치세의 의지로 같은 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게 된 그의 하운드. 이치세의 동생과 닮은 구석은 없으나 어쩐지 동생처럼 대해졌다. 스즈 또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유일한 상대인 이치세를 많이 의지했다고 한다.

이치세가 부하를 홀로 감당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만큼은 끝까지 보호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이해하기에 군말없이 그 지시에 따라왔다. 다만, 그 끝이 이루어질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